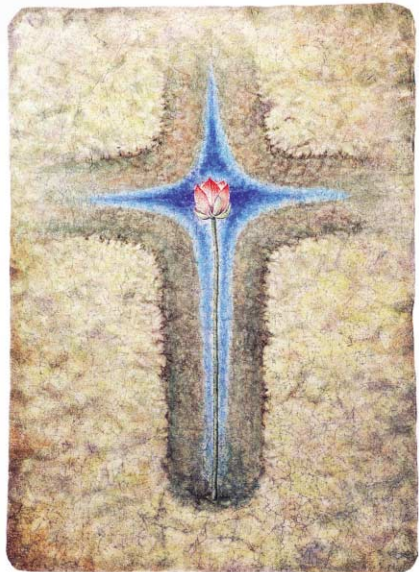


# 예술에는 종교벽 없다



천광호씨의 '함께 가는 길'.



조병현씨의 '여래'.



노원희씨의 '생활의 기쁨'.

대구지역에서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의 작가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다. 1백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작품은 2백여점이 벽에 걸린다. 이번 전시는 원래 대구·경북지역 작가들

## 대구·경북 지역 종교 예술인들 음악·미술 통해 이해 폭 넓혀

연말을 맞아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이 예술을 매개로 한 종교회합의 한마당을 꾸려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12월 9일 부산 여여선원 선방에서 열린 '생명 존중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대구지역에서는 14일부터 19일까지 미술전 '사랑, 나눔, 자비, 평화의 합창展'이, 16일에는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합창단이 한 무대에 올라 종교회합의 대합창을 선사하는 '종교 음악제'가 각각 펼쳐진다.

### '사랑·나눔·자비·평화의 합창展'

대구문화예술회관(12월 19일 까지)

이 중심이 돼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를 열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미술협회(회장 배현근)와 대구가톨릭미술협회(회장 천광호)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 지난해부터 두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전시를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신교와 원불교 작가들까지 참여시켰다.

미술을 통해 종교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의도에서다. 출판되는 미술 장르도 회화를 비롯해 조각 공예 단청 서예 수묵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번 행사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2층 특별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의 주제는 '사랑, 나눔, 자비, 평화의 합창展'이다.

창환씨 등 30여명이 참가한다. 종교간의 화합을 상징한 서양화가 천광호씨의 '함께 가는 길'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연꽃을 그려 넣어 종교인들간의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닥종이에 혼합 재료를 써서 그린 이 작품은 한 눈에 보아도 종교 화합의 의미가 짙어 이번 전시회의 취지를 금방 알게 해준다.

이외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수채화 풍으로 그린 원동수 신부의 '풍경'은 바라보고 있으면 고요한 명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개신교에서는 한준봉 윤희숙 윤형자 정용인 김광배 등 20명의 작품이 벽에 걸린다. 또한 원불교에는 노원희, 이동찬 등 4명이 참가한다.

이 행사를 주최한 배현근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는 기성 작가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일반인들도 참여시켜 나이와 종교를 초월한 지역 미술축제 형식으로 기획했다"며 "올해는 비록 4개 종교에 국한시켰지만 내년에는 7개 종교의 작가들로 참여 폭을 넓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한 천광호 회장도 "비록 작은 규모지만 미술인들 스스로 예술을 통해 종교의 벽을 넘어선 만남이라는 점에서 어느 전시회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관객들이 다양한 종교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동시에 감상하며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가 끝나면 50여점 정도의 작품을 선별해 대구 화원 교도소에 기증할 예정이다. (011)498-0888

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부산 여여선원에서 열린 '생명 존중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

### 생명 존중과 평화 정착...음악회

부산에서 성가대가 찬불가를 부르고 사찰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는 이색 음악회가 열렸다.

12월 9일 부산 여여선원 선방에서 열린 '생명 존중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는 스님, 신부, 목사 등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공동선 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의장 장영) 주최로 열렸다.

여여선원 다도회의 다도 시연으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선방에 둘러앉은 대중들이 한잔의 차를 나누며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게 해 정겨움을 더했다. 불교합창단, 중창단, 천주교 합창단 출연 외에도 유교의 사창 순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종교 음악제는 '찬미'의 대상은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 되는 종교 화합의 장. 특히 이번 무대는 대구시립국악단의 제 111회 정기연주회와 송년 음악회를 겸한 무대로 세 종교의 대표적인 합창단이 출연, 종교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게 된다.

### 3대 종교 대표 합창단 공연

국악관현악의 반주로 진각종 금강합창단(지휘 류성욱), 대구가톨릭음악원(지휘 김정선 수네), 기독교 경북합창단(지휘 김근), 대구가톨릭 청소년소녀합창단 뿌에리 칸포레스(지휘 김정선 수네)가 무대에 오른다.

교회 음악의 진수를 일러진 그레고리오 성가와 무반주 합창을 전문으로 하는 대구가톨릭 청소년소녀합창단 뿌에리 칸포레스의 무대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교음악의 맑고 깊은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립국악단 박상진 상임지휘자의 연합 지휘로 종교 연합 합창단이 들려주는 '정신 별곡'도 빼놓을 수 없는 무대.

이 밖에도 소프라노 이정아가 객원 출연하며 대구가톨릭음악원의 '미사' '반오시용소서' 기독교 경북합창단(지휘 김근)의 '이 기쁜 날' '감사하세'와 금강합창단의 '거울을 닦아내듯' '연꽃 피어 오르리' '일렁강에 비치는 달' 등이 연주된다. (053) 606-6310

천미희·배지선 기자

## 꽃을 넘은 마음의 춤사위



장·중·동의 조화를 보여주는 범우 스님의 '살풀이 춤'.

### 범우 스님 전통춤 공연(대전시청 강당, 12월 15일)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에 박사(薄紗) 고깔을 한 범우 스님(대전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승무예능보유자·현불사 주지)이 승무의 춤사위를 흠날리는 무대를 마련한다.

범우 스님은 전통춤 공연 '초지일관(初志一貫)'을 12월 15일 저녁 7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무대에서는 승무를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돼 있는 법고춤과 천수바라춤, 나비춤, 화심곡 등이 시연된다.

이중 '천수바라춤'은 <천수경>중 '신묘장구대다라니' 진언을 연송하며 추는 춤으로 불법을 수호하고 악귀를 물리쳐서 도량을 청

### 두손벌리며 사뻐히 추는 '나비춤' 장엄

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춤으로 양손에서 바라를 휘감아 돌리는 춤사위는 장엄함을 연출한다. 또한 조용히 느린 춤사위로 두 손 벌리며 사뻐히 추는 '나비춤'은 영산재 이식중 가장 아름다운 춤으로 손꼽히고 있어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개인 공연이지만 찬조로 출연하는 스님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조교 원명 스님을 비롯해 정오 현준 병천 승우 도안 지수 등 20여명의 영산재 보존회원 스님 등이 무대에 선다. 여기에 장하선 지성철 최석권 류기형 이용은 씨 등 20여명의 우리문화 예술원 회원들도 동참한다. (042)271-3395



불교 무용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인간의 애증과 희비를 표현한 '승무'.

해돋이가 아름다운 약산 약사 여래도량

## 신년 해맞이 대법회

부처님 가사에 얽힌 전설이 깃든 전남 완도 약산 가사 부락에 자리한 해동사는 약사여래불을 모신 도량으로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영험을 얻고, 암도 치유되는 신비한 기도성취 도량입니다.

해돋이가 아름다운 약산 해동사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는 무사회향과 올유년 새해 소원 성취발원을 위한 철야정진 기도(1080배), 연비식을 병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질병치유와 무량공덕을 성취하십시오.

■ 일 시: 2004년 12월 31일(오후 6시) ~ 2005년 1월 1일

■ 동참금: 1인 1만원(저녁, 떡국 공양)

**해동사 주지 일광 합장**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가사마을(가사리 해수욕장)  
061)555-0879, 011-640-0879

▶ 오시는 길: 전남 강진-마량 선착장-약산 해동사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 과정: 초급, 고급
-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주요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임상실습
- ▶ 개강: 2005. 1. 3. (주·아침반: 3개월 완성)
-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 사암침술학회

장소: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02) 2267-9136, 011-307-

##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전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창 (현재 8명) 안내: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뭄바이-엘로라-아전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싱카시야-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1월 13일) .....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뭄바이-엘로라-아전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12월 28일, 1월 14일) .....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